

화학의 날 기념식 3월19일 개최

울산시는 자체 지정한 제4회 화학의 날을 맞아 3월 19-21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글로벌 리더 초청강연과 미래 화학산업 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.

울산시에 따르면, 3월19일 중구 다운동 테크노파크에서 지역 기관 및 단체장과 화학기업인 및 근로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는다.

기념식 후에는 테크노파크 부지에서 지역 화학산업의 연구개발(R&D)을 총괄할 신화학실용화센터와 국제기 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산업 인프라 시설인 친환경정정기술센터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.

이어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과 유룡 KAIST 교수, 김광수 포스텍 교수 등 글로벌 리더를 초청해 제1주제 녹색화학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발전동향, 제2주제 세계 나노산업 발전동향 및 나노화학에 대해 각각 특강한다.

울산대학교 산·학협력관에서는 전국의 화학관련 교수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화학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2차전지산업의 발전전략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0/03/15>